

프로야구 순위 싸움 점입가경... 남은 일정 누가 유리한가

삼성·KT, 1위 싸움 대혼전...1위 삼성 자력 우승 불가능
두산·SSG 등 중위권 싸움도 안갯속...30일 정규리그 끝

오는 30일 정규리그를 마치는 KBO 리그가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위부터 8위까지 결정된 순위는 하나도 없다. 4경기 안팎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각 구단들은 시즌 막판까지 총력전과 함께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위권 진입을 노렸던 LG 트윈스는 지난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3위 LG(69승 13무 57패)는 최근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1. 2위 탈환은 내려놓은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2위 KT 위즈(74승 8무 57

패)와의 승차는 불과 2.5경기다. KT가 연패를 거듭할 경우, 마지막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1위 싸움이다. 삼성(75승 9무 57패)은 시즌 막판 KT를 0.5경기 차로 밀어내고 1위를 탈환했다. 삼성은 올해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7일 키움 히어로즈, 29, 30일 NC 다이노스와 맞붙는다. 올해 삼성은 키움과 NC에 상대전적에서 앞섰다. 하지만 상대 역시 '가을야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혈투가 예상된다. 삼성은 남은 경기에서 3승을 기록한다고 해도 자력으로 우승하지 못한다.

KT가 5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12경기에서 3승 1무 8패의 성적을 기록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KT는 27일 NC와 맞붙고, 28일 NC와 더블헤더를 치른다. KT는 올해 NC와 상대전적에서 6승 1무 6패로 호각세를 보였다. KT는 이 3경기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KT는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와 차례로 일전을 치른다. 4위 두산(67승 8무 64패)과 5위 SSG(64승 14무 62패)의 2연전(27, 28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산은 지난주 SSG와의 2연전을 모두 패해 큰 충격을 받았다.



두산은 이번에도 SSG의 에이스 윌머 폰트와 샘 가벨리오를 공략하지 못할 경우 '가을야구'를 장담할 수 없다. 두산은 29, 30일에는 하위권 팀들과 상대한다. SSG는 올해 두산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폰트와 가벨리오를 다시 한번 선봉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SSG는 마지막 4경기 모두가 결승전

이라는 생각으로 전장에 나선다. 6위 키움(67승 7무 66패)은 남은 4경기에서 3승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가을야구'를 바라볼 수 있다. 전남 이정후 등 타자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7위 NC(65승 8무 65패)는 6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산술적으로 70승 이상도 가능하다. 70승이라면 포스트시즌

진출이 가능한 수치이다. 하지만 5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연승을 기록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순위 싸움에 나선 팀들은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전 등 하위권 구단에 패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뉴스

'1골 1도움' 광주 엄원상, K리그1 24라운드 MVP 선정

수원전 3-1 승리 이끌어

광주 엄원상이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MVP에 선정됐다고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밝혔다. 엄원상은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엄원상은 전반 18분 엄지성에게 땅볼 크로스를 연결하며 선제골을 도왔다. 후반 8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김종우의 패스를 이어받아 빠른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세번째 골을 넣었다. 엄원상은 이날 경기 내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광주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K리그1 24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조영욱(서울), 주민규(제주), 구스타보(전북)가 이름을 올렸다. 엄원상, 엄지성, 기성용(서울), 강현목이 미드필드진을 형성했고 권경원(성남), 헨리(수원), 강상희(서울)가 라운드 최고의 수비수로 뽑혔다. 골키퍼는 김영광(성남)이다. K리그1 24라운드 베스트 팀은 서



울이 선정됐다. 서울은 같은 날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강원FC전에서 강상희, 팔로세비치, 윤종규, 조영욱의 득점 행진에 힘입어 4-1 대승을 거뒀다. 서울은 이날 승리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K리그2 35라운드 MVP는 대전 마사가 가져갔다.

뉴스

감 잡은 이정후, 남은 목표는 고척돔 라커룸 사수

다음달 15일부터 포스트시즌 고척돔서 진행...현재 6위 키움, 가을야구 못 가면 또 안방 비워줄 판

이정후(키움)는 지난해 11월2일 LG 트윈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지명(홈구장인 고척돔의) 라커룸을 비워야 한다. 그걸 언제 다 빼냐. 계속 내버려두고 싶다. 내가 좀 깔끔한 걸 좋아한다. 나만 쓰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발이 늦었던 지난 시즌 KBO리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플레이오프부터 모든 포스트시즌을 고척돔에서 치렀다. 고척돔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키움은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판에서 패하면서 한 경기 만에 가을야구를 마쳤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4위 팀 LG의 홈인 잠실구장에서 치러졌기에 정작 키움 선수들은 포스트시즌 때 고척돔에 서보지도 못했다. 올해 KBO리그 포스트시즌 역시 주무대는 고척돔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다음달 15일부터 진행되는 포스트시즌을 고척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선수들의 음주 파동과 2020 도쿄올림픽 휴식기로 일정이 밀리면서 또 한 번 고척돔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금의 키움은 지난해보다 좀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1년 전에는 가



을야구 진출을 비교적 일찍 확정된 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했다. 올해는 포스트시즌행 티켓 확보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키움은 4경기를 남겨두고 67승 7무 66패로 6위를 달리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는 5위 SSG 랜더스(64승14무62패)와 격차는 0.5경기다. 키움에 주인 없는 안방에서 남들이 치르는 축제를 지켜보지 않으려면 최소한 5위 이내에는 진입해야 그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혈투가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정후의 부활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다. 16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20일 LG 트윈스전까지 18타수 무안타에 그

쳤던 이정후는 이후 3경기에서 타율 0.750(12타수 9안타)로 완전히 살아났다. 이정후는 21일 LG전에서 4타수 3안타로 감각을 끌어올리더니 24일 KT 위즈전에서 4타수 2안타를 쳤다. 25일 한화 이글스전은 완연한 상승 곡선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이었다. 현역 시절 '야구 천재', '바람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아버지 이종범 현 LG 코치도 이렇지 못했다. 사이클링 히트라는 진기록까지 남겼다. 잠시 떨어졌던 페이스는 확실히 올라왔다. 기본 좋은 업적을 달성한 이정후의 다음 시선은 가을야구를 향하고 있다. 고척돔 라커룸을 비워줘야 했던 슬럼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정후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할' 백인천·달인 장효조, 역대 프로야구 타격왕은?

백인천, 프로야구 유일 4할 타자
장효조-양준혁 타격왕 4회 수상
2009년 박용택 고의 파하기 논란

KBO리그 타격왕은 그해 최고의 타격 고수에게 붙는 영예로운 칭호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막판 팀 순위 싸움 못지않은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1위 경쟁은 이정후(키움), 강백호(KT), 전준우(롯데)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세 선수 모두 데뷔 첫 타격왕 도전이다. 8월 중순까지 4할을 지키며 독주 체제를 갖추는 듯 했던 강백호의 페이스가 크게 떨어진 사이 이정후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경쟁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후반기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전준우까지 가세하면서 타이틀의 주인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역대 타격왕 중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찍은 이는 프로 원년인 1982년의 백인천이다. 백인천은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뛰면서 초대 타격왕에 등극했다. 20년 가까이 일본프로야구를 경험한 백인천과 아직 실업의 티를 벗지 못한 다른 선수들은 현격한 수준차를 보였다. 그 결과 백인천은 0.412(250타수 103안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2위 윤동균(OB베어스·타율 0.342)과 7푼이나 차이가 났다. 백인천 이후 수많은 타격 도사들이 4할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현재까지 아무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근접했던 이는 1993년의 이종범(해태)이다. 이종범은 104경기까지 4할을 유지했지만 아쉽게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0.393으로 시즌을 마쳤다. 은퇴 후



백인천 장효조

이종범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고기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전설적인 두 선수인 장효조와 양준혁은 한 번도 힘든 타격왕을 4차례나 경험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1983년 첫 타격왕에 오른 장효조는 1985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KBO리그에서 3년 연속 상위 타자가 된 이는 장효조 뿐이다. '타격의 달인'으로 불리던 장효조의 프로 통산 타율 0.331은 여전히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은 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타격 기술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던 양준혁도 1993년, 1996년, 1998년, 2001년 네 차례나 타격 타이틀을 수상했다. 앞선 세 차례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2001년에는 LG 트윈스 소속이었다. LG의 '영원한 9번' 이병규는 최고령 타격 1위 기록을 갖고 있다. 1974년 10월생인 이병규는 우리나라로 마흔이 된 2013년 타율 0.348로 트로피를 가져가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초대 타격왕 백인천 역시 이병규와 같은 만 39세에 대업을 이뤘지만 생일이 이병규보다 한 달 가량 늦다. 1989년 빙그레 이글스에서 뛰던 재일교포 고원부는 역대 최저 타율 타

격왕이다. 그의 기록은 0.327. 당시 김영덕 감독은 고원부를 타격왕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경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고원부의 사례처럼 타율 관리를 위해 일종의 편법들이 동원됐던 기억은 제법 있다. 2009년 박용택(LG)과 홍성흔(롯데)의 막판 경쟁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최종전을 앞두고 박용택과 홍성흔의 타율은 각각 0.374와 0.372였다. 홍성흔이 승부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2안타 이상이 필요했다. 공교롭게도 롯데의 시즌 마지막 상대는 LG였다. LG 투수들은 3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한 홍성흔에게 결코 좋은 공을 허락하지 않았다. 첫 타석부터 LG 투수들의 철저한 외면에 불뱃을 골라낸 홍성흔은 이후 세 타석에서도 상대가 고의사구가 가까운 공들만 던진 탓에 베트조차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물러났다. 홍성흔은 더 이상 안타가 무의미해진 5번째 타석에서 고대하던 정면 승부를 맞았지만 외야 뜬공으로 물러났다. 결국 그해 타격왕은 타율 관리를 위해 롯데전에서 건너편 박용택에게 돌아갔다. 경기 후 롯데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정직한 자전이다. 매우 실망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고, LG 김재박 감독은 "박용택이 선수 생활에서 여러 번 맞기 힘든 좋은 기회를 잡아 꼭 도와주고 싶었다"고 투수들에게 홍성흔과 승부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엄정한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박용택은 지난해 은퇴에 앞서 "정말 그 이후로는 야구장 안팎으로 많이 노력하고 싶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

고진영, 세계랭킹 1위 탈환...코다와 0.02점차

박민비·김세영 3위·4위 유지

고진영(솔레이어)의 세계랭킹 1위 도약이 공식 발표됐다. 고진영은 26일(한국시간) 공개된 새 여자골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평점 9.36을 받아 넬리 코다(미국·평점 9.34)를 0.02점차로 제쳤다. 고진영의 1위 복귀는 4개월이던 충분했다. 2019년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최고에 등극한 고진영은 1년 11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2021시즌 들어 고진영이 우승을 신고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코다에게 1위를 내줬다. 절치부심한 고진영은 7월 불런 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나서더니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9월), 카그니전트 파운더스컵(10월)

을 연거푸 제패하며 격차를 좁혔다. 고진영은 지난 24일 부산에서 끝난 국내 유일 LPGA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마저 거머쥐면서 본래 자리를 찾았다. 박민비(KB금융그룹)와 김세영(메디힐)은 각각 평점 6.49와 평점 6.01로 3·4위를 지켰다. 김효주(롯데)도 11위를 유지했고 박민지(NH투자증권)는 두 계단 하락한 16위가 됐다.

뉴스